JENESYS 2022

한국청년방일단 제 2~4 단 (초빙) 의 기록

1. 프로그램 개요

【목적】

JENESYS 2022 의 일환으로 주대한민국 일본대사관, 주부산 일본총영사관, 주제주 일본총영사관에서 선발된 대학생 등을 초빙하여 '방재 Tourism~동일본대지진 피재지 부흥상황 시찰' 이라는 주제 아래 각종 시찰, 강연 청강, 학교 방문 등을 통해 일본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향후 한일 간의 상호이해 촉진과 신뢰관계 증진을 위한 기반 강화에 기여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한다.

【참가자】

사전학습 (온라인) : 한국의 대학생 등 123 명

초빙 (오프라인) : 한국의 대학생 등 123 명

【방문지】

도쿄도 (**東京都**) ,미야기현 (**宮城県**) ,이와테현 (**岩手県**) ,사이타마현 (**埼玉県**) , 지바현 (**千葉県**)

2. 일정

사전학습 (온라인) :

1 월 6 일 (금) 방일 전 오리엔테이션

일본 현지 프로그램 :

1 월 13 일 (금) 나리타・하네다 공항 입국, 오리엔테이션

1 월 14 일 (토) 미야기현으로 이동, 마쓰시마 시찰(쓰나미 피해가 비교적 적은 사례와 그 이유를 고찰)

1 월 15 일 (일) 이시노마키시내의 부흥상황 시찰 및 주민 체험담 청강, 오나가와 지역의 부흥상황 시찰(방조제가 없는 부흥 사례), 이시노마키시립 오카와 초등학교 시찰

1 월 16 일 (월) 미나미산리쿠지역의 부흥상황 시찰(둑돋기 부흥 상황), 및 주민 체험담 청강, 진재유구 다카노 회관 등 시찰, 이와테현으로 이동, 동일본대진재 쓰나미 전승관 이와테 쓰나미 메모리얼 시찰, 미나미 산리쿠 산산상점가 시찰

1 월 17 일 (화) 도쿄도로 이동, 외무성 강의 '최근 한일관계' 수강

1 월 18 일 (수) 제 2 단: 조사이국제대학교, 제 3 단: 독쿄대학교, 제 4 단: 호세이대학교 방문, 성과보고회

1 월 19 일 (목) 나리타・하네다 공항 출국

3. 프로그램 기록사진 (방문지:도쿄도,미야기현,이와테현,사이타마현,지바현)

<table>
<tr><td> </td><td> </td></tr>
<tr><td>1 월 15 일【시찰】이시노마키시내의 부흥 상황</td><td>1 월 15 일【시찰】오나가와지역의 부흥 상황 (방조제가 없는 부흥 사례)</td></tr>
<tr><td> </td><td> </td></tr>
<tr><td>1 월 15 일【시찰】진재유구 오카와 초등학교</td><td>1 월 16 일【시찰】미나미산리쿠지역의 부흥 상황 (둑돋기 부흥 상황) 진재유구 다카노 회관 등</td></tr>
<tr><td> </td><td> </td></tr>
<tr><td>1 월 16 일【시찰】동일본대진재 쓰나미 전승관 이와테 쓰나미 메모리얼</td><td>1 월 17 일【강의】외무성 '최근 한일관계'</td></tr>
</table>

1 월 18 일【학교방문】조사이국제대학교	1 월 18 일【학교방문】독쿄대학교
1 월 18 일【학교방문】호세이대학교	1 월 18 일【성과보고회】

4. 참가자 소감 (발췌)

◆ 한국 학생

한국청년방일단으로 일본을 방문했을 때 단순한 일본 관광이 아니라 미야기현과 이와테현 시찰을 통해서 자연재해의 끔찍함을 생생하게 느끼고 대처와 피난 방법을 깊이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습니다. 일반 자유 여행보다 뜻깊은 시간을 가졌고 화려한 도쿄와는 또 다른 고즈넉하고 아름다운 지방의 매력을 느꼈습니다.

◆ 한국 학생

일어났던 재해를 입은 것에 슬퍼하며 잊으려는 것이 아닌 아픔을 기억하고 후세에도 일어날 수 있음을 감안하여 전승하는 일본인의 자세가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거의 경험을 교훈으로 삼고 후손들에게 알리며 또 다른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방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 한국 학생

동일본 대지진 시찰을 다니면서 피해자분들의 해설을 듣고 미디어에서 접했던 것과 달리 현실로 와닿았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끔찍한 재해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가족과 친구와 함께하는 평범한 일상을 소중하게 여기고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모르니 미리 대비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사람

들에게 경각심을 불러 일으켜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가 보고 느낀 것들을 제대로 전달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한국 학생

피해자들의 유가족 혹은 그 주변인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을 수 있다는 점이 가장 좋았습니다. 물론 실제 피해를 입은 건물들이나 현장을 보는 것도 생생한 현장감을 주었지만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 배워나가는 것이 가장 좋았던 것 같습니다.

5. 일본 측 소감 (발췌)

◆ 시찰지 해설사

이번에는 특별히 한국에서 오셔서 대단히 기뻤습니다. 재해 당시에 집이 떠내려가 피난소 생활을 하고 있었을 때 한국 등지에서 구원 물자가 도착해 대단히 감사히 받았는데 그 감사의 인사도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들이 지진재해로 체험한 것을 다른 사람들은 체험하지 않았으면 하고 바라기 때문에 우리의 경험을 어떠한 교훈으로 삼아서 한국분들께도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연재해는 언제 무엇이 발생할지 모르므로 언제든 생명을 지키기 위한 대비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 방문학교 학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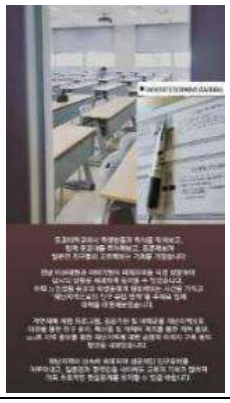
한국에서 온 학생들이 이와테현과 미야기현의 재해지를 시찰한 감상을 들었을 때 자신에게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남의 일이 아닌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깨달았다는 이야기가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 학생분들이 일본에서 일어난 지진재해에 대하여 매우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기뻤습니다.

◆ 방문학교 학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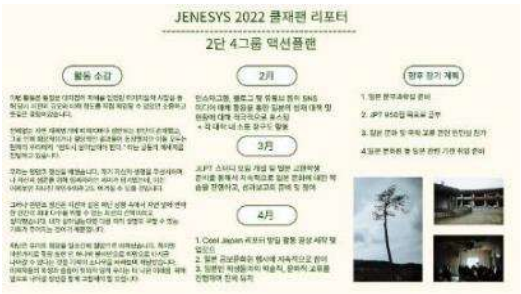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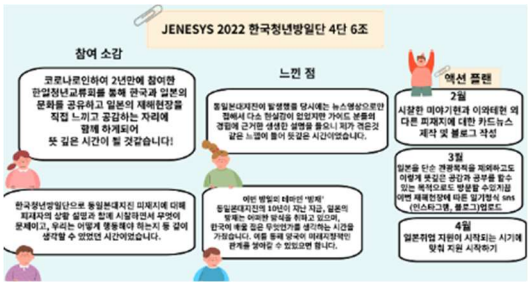
일본어밖에 못해서 굉장히 불안했는데 실제로 참가해 보니 중요한 것은 언어가 아니라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외국 사람들과 어울릴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매우 귀중한 경험이 되었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친구가 될 수 있었고 한국에서 만날 약속도 했습니다. 이번 교류회로 끝나지 않고 다음의 교류로 이어질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6. 참가자의 대외 발신

이시노마키시와 오나가와쵸 시찰에 대한 포스팅 두 도시는 많은 피해를 입었다는 공통점을 지니면서도 재해를 방지하기 위해 선택한 방식이 달랐습니다. 지역 특성과 주민 의견이 반영된 결과이며 특히 오나가와의 경우 파도를 막기 위한 방파제를 설치하지 않고 아예 마을의 높이를 10 미터 올리는 대대적인 공사를 했습니다. 바다와 늘 함께했고 바다를 보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다는 주민들의 의사가 다수 반영된 결과입니다. 직접 피해을 입었던 주민들이 가이드가 되어 당시의 상황과 변화를 이야기 해주셔서 더욱 뜻깊었습니다. 슬픔을 건너 다른 이들이 똑같은 일을 겪지 않도록 알리는 역할을 자처하는 모습이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피재지 시찰에 대한 포스팅 한때 삶의 터전이었던 대지와 바다가 캄캄한 파도가 되어 몰려오는 그 순간의 감정과 고통을 감히 헤아릴 순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잃지 않는 모습을 기억하며 살아가고자 합니다. 더불어 현장을 그대로 보존하고 고향을 떠나지 않는 모습에서 방재를 대하는 분들의 굳건한 정신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命を守る(생명을 지킨다) 피재지를 시찰하며 인상 깊게 들었던 말입니다. 쓰나미와 지진, 나에게는 닥칠 일이 없을 것이라 생각하는 분들도 많으리라 생각됩니다만 이번 활동을 통해 깊이 느꼈던 것은 재난은 그 누구도 예상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지키지 못했던 생명을 기억하기 위해 이 게시물로 인해 우리의 '방재'에 대해서도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이시노마키시 시찰에 대한 포스팅 쓰나미 피해를 기억하고 알리기 위한 전시관을 방문했습니다. 피재자들의 생전 마지막 물품과 쓰나미 발생 당시 사람들의 피난 움직임을 기록한 영상 등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지진이 일어나고 쓰나미가 올 때까지 시간이 있는데 그동안 살기 위해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을지 생각하는 것이 중요	다카노회관 시찰에 대한 포스팅 미야기현 호텔 간요 피재자 직원분의 경험담과 함께 진재유구를 포함한 미나미산리쿠 피해 상황을 시찰하였습니다. 근처 학교와 예식장이었던 다카노회관, 방재대책청사를 둘러보면서 만약 내가 그곳에 있었다면 쓰나미의 크기에 압도당해 몸이 굳었을 것 같았습니다. 또한 피재자의 이야기로 쓰나미는 지진

하다는 안내자분의 말이 인상 깊었습니다. 또한 이를 가족, 친구들에게 알려 자연재해가 일어났을 때 신속한 대처를 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후의 오는 재해이기에 충분히 도망칠 수 있다는 것과 가족끼리 짧게나마 재난 대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져 소중한 사람과 시간을 빼앗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오카와 초등학교 시찰에 대한 포스팅 오카와 초등학교에서의 해설이 정말 마음을 울렸습니다. 대지진으로 인해 당시 초등학교 6 학년인 딸을 잃은 분께 직접 설명을 들었는데 덤덤하게 말씀을 하시는데도 묻어나오는 그 슬픔과 아픔이 내게도 전해졌습니다. 해설사분들은 지진의 피해와 아픔뿐만 아니라 이후의 재건사업과 부흥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셨고 마지막에는“이 아픔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알리고 있다." 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일본에서 돌아본 동일본 대지진, 남겨진 이들의 아픔과 슬픔 그리고 미래를 향한 희망을 느낄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학교방문에 대한 포스팅 독쿄대학교에서 학생분들과 교류해보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전날까지 이와테현과 미야기현의 피재지역을 직접 방문하여 당시의 상황을 세세하게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이때 느낀 점을 독쿄대 학생들에게 발표해보는 시간을 가지고 "재난지역으로의 인구 유입 방책"을 주제로 함께 대책을 마련해보았습니다. 자연재해 체험 프로그램, 공공기관 및 대학교의 재난지역으로 이전을 통한 인구 유치, 특산품 및 캐릭터 제조를 통한 지역 홍보 등의 방안을 내보았습니다. 재난 지역이 신속히 회복되어 일본인과 한국인들 사이에도 교류의 기회가 많아져 더욱 우호적인 한일관계를 유지할 수 있길 바랍니다.

7. 보고회에서의 귀국 후 액션플랜 발표

<table>
<tr>
<td>
</td>
<td>
</td>
</tr>
<tr>
<td>액션플랜의 발표 1
-프로그램 후기를 블로그/카드뉴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업로드.
-호세이 대학 학생들과 SNS 를 통한 지속적인 교류.
-JENESYS 방일단 Vlog 제작.
-동일본 대지진 12 주기 관련 포스팅 업로드.</td>
<td>액션플랜의 발표 2
-네이버 블로그, 인스타그램, Youtube 등 SNS 및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방일 활동 등 후기 작성 업로드.
-JPT 및 JLPT 자격증 응시에 관심있는 학생들을 위하여 자격증 시험 관련 콘텐츠 제작 및 포스팅.
-한일관계의 원활한 교류 및 협력을 위한 일본 관련 대외활동 및 공모전 홍보 및 참여 독려.</td>
</tr>
<tr>
<td> 
</td>
<td> 
</td>
</tr>
<tr>
<td>액션플랜의 발표 3
-인스타그램, 블로그 및 Youtube 등의 SNS 미디어 매체활용을 통한 일본의 방재대책 및 현황에 대해 적극적으로 포스팅 및 소속 대학교에서의 홍보
-JLPT 스터디 모임 개설 및 일본 교환학생 준비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일본 문화에 대한 학습을 진행
-방일단 활동 영상 제작 및 업로드
-일본인 학생들과의 교류를 진행하며 친목 유지</td>
<td>액션플랜의 발표 4
-시찰한 미야기현과 이와테현 외 다른 피재지에 대한 카드뉴스 제작 및 블로그 작성
-일본을 단순 관광목적이 아니라 이렇게 뜻깊은 공감과 공부를 할 수 있는 목적으로도 방문할 수 있게끔 이번 재해현장을 다룬 기사를 일기형식으로 sns 업로드
-일본취업 지원이 시작되는 시기에 맞춰 지원 시작하기</td>
</tr>
</table>

실시단체명 : 공익재단법인 일한문화교류기금